

한국문화에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 요인들

한 덕 응[†]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필자와 공동연구자들(2002)이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주관안녕척도를 사용하여 한국문화에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낸 연구 결과들을 개관하고, 국내외 연구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논의하고, 장래 연구할 과제들도 제안하였다. 먼저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로 ① 개인차와 인구통계 변인들, ② 개인과정 요인들, ③ 대인과정 요인들 및 ④ 한국문화의 요인으로 사회규범에 따른 행동을 다룬 연구 결과들을 개관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안녕이 동시점에서 신체건강의 예측에 기여하는 수준과 아울러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종단적으로 신체건강이나 생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냈다. 본 논문은 한국문화에서 필자와 공동연구자들이 수행한 실증연구의 결과들과 연결시켜서 주관안녕을 연구하는데 따르는 이론, 방법 및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장차 문화비교 연구와 아울러 국내 연구에 시사점들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한국문화, 삶의 만족, 주관안녕, 인구통계변인, 정서경험, 자기노출, 사회비교, 유교문화, 사회규범, 노인

[†] 교신저자 : 한덕응,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E-mail : dwhahn@skku.edu, 전화 : 02-760-0485,

한국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조사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래 한국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행복 ($M=5.99$)이 1위로 평가되었고(한덕웅, 2003a, 2003b, 2004), 2위는 건강, 그리고 3위는 생명존중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 한국인이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요소들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1위는 건강($M=6.27$), 2위가 가정의 화목, 그리고 3위가 행복($M=6.05$)이었다. 이 연구 결과들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개인이나 공동사회의 가치로서 행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행복이 주관적으로 경험되므로 이에 관한 심리학 연구는 대부분 주관안녕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

지난 30여년에 걸쳐서 주관안녕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 가치, 사회규범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안녕과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예: Diener & Suh, 2000). 이 때문에 주관안녕에 관해서 어느 한 문화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근거로 여러 문화에서 유사한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추론하기는 어렵다. 이 사실은 비록 여러 문화에서 주관안녕을 다룬 연구들을 통합함으로써 일반성이 높은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문화에서 특수하게 한국 사람들의 주관안녕에 관련되는 변인들을 알아내는 일 역시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필자와 공동연구자들이 한국 문화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주관안녕척도를 개발하여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사용하여 얻은 결과들을 논의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필자와 공동연구자들이 한국문화에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조사연구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 사회심리 요인들

가운데 어떤 요인들이 실제로 주관적 안녕에 기여하는지 알아낸 결과들을 정리하고, 국내외 일부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논의하고, 장차 주관안녕에 관한 이론이나 실증연구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들도 아울러 논의하려고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다음 두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2) 개인이 경험한 주관안녕의 영향으로 초래되는 후행결과 요인들이다. 이 가운데 먼저 (1) 선행요인으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필자가 가정한 변인들로는 ① 개인요인, ② 개인과정 요인, ③ 대인과정 요인 및 ④ 문화요인을 다루게 된다. 이 가운데 ① 개인차 변인으로 개인의 인구통계 요인들과 아울러 가족의 사회관계 연결망, ② 개인과정 요인으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정서들을 경험한 빈도와 아울러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인지적 사고의 영향, ③ 대인과정 요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사회비교해서 초래된 결과, 그리고 ④ 문화요인으로 한국문화에서 사회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관습화된 사회행동들을 개인이 실행함으로써 초래되는 주관안녕의 효과를 다루려고 한다. 한편 (3) 개인이 경험한 주관안녕의 수준에 따라서 초래되는 다양한 효과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청년과 노년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통해서 신체건강과 아울러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결과를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관안녕의 선행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주관안녕의 후행결과로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논리적 근거들과 아울러 국내외 선행 연구의 추세를 각각 간략하게 살펴보

기로 한다.

(1) 본 연구에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다루게 되는 개인요인들에는 다음 요소들이 포함된다. 먼저 ① 개인차와 인구통계 변인들로는 국내외 여러 연구들에서 가장 자주 다룬 인구통계 요인들 가운데 성별, 연령, 경제상태, 결혼상태가 한국문화에서는 주관안녕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한다. 특히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주관안녕을 다루기 시작한 초기에 Wilson(1967)이 개관한 바와 달리 여러 인구통계 변인들과 주관안녕의 상관성이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들이 일관되지도 않았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또한 한국문화에서는 친밀한 사회관계 연결망이 개인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 요인들 가운데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가족들도 개인의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이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의 가족들 역시 친밀한 관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류의 질에 따라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개인과정 요인들로는 한국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당면하는 사건들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아울러 스트레스를 유발한 사건들에 관해서 생각하는 사고가 주관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게 된다. 이 가운데 정서경험에서는 먼저 한덕웅과 표승연(2002)의 연구에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정서용어들을 가려내고,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경험한 빈도에 따라서 주관안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루었다. Diener, Suh, Lucas 및 Smith(1999)는 주관안녕의 정서로서 긍정정서

와 부정정서가 비록 상관은 높지만 독립되는 별개의 요인이라고 본다. 그리고 주관안녕의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적정서로는 기쁨, 고양(elation), 만족, 자부심, 애정, 행복, 황홀을 경험한 빈도를 측정한다. 또한 부정정서의 범주들로는 죄책감과 수치, 슬픔, 불안과 걱정, 분노, 스트레스, 우울 및 부러움(envy)의 경험 빈도를 측정한다. 다시 말해서 Diener와 공동 연구자들은 앞에 적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들의 경험빈도가 바로 주관안녕의 정서 수준이라고 측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각 범주의 정서들이 주관안녕의 정서반응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니는 행복감의 정서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더구나 어떤 긍정정서나 부정정서를 일시적으로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전반적 삶에 대한 정서반응에 항상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정서 경험들이 삶에 대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이거나 혹은 후행 종속변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주관안녕의 정서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정서들을 근거로 형성되는 전반적 행복정서라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서들을 가려내어서 주관안녕정서의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를 사용하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정서들이 전반적 삶에 대한 행복 정서의 판단에 어느 정도 기여하며, 특히 어떤 정서들이 크게 기여하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동시점에서 경험하는 정서 경험과 주관안녕정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정서를 경험한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관안녕정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보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정 요인들 가운데 인지요인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한 생활사건에 대한 반복생각이나 자기노출이 주관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게 된다. 국내에서도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자기노출이 불안, 우울, 건강지각, 신체증상들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김교현, 1991, 김교현, 한덕웅, 1996).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복생각, 생각억제, 생각회피, 주의분산 등이 주관안녕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본 연구의 결과들을 다루려고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③ 사회관계에서 대인과정 요인들이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본다. 특히 주관안녕의 연구에서는 일찍부터 사회비교에 의해서 주관안녕이 달라지는 현상을 다루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한덕웅, 1999; 한덕웅, 장은영, 2001; 장은영, 한덕웅, 2004; 이희란, 한덕웅, 2005)에서도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비교의 결과에 따라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그리고 자기평가가 달라지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Diener와 Suh(2000)도 특히 집합주의 문화에서 사회규범과 아울러 사회비교가 주관안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끝으로 ④ 문화요인에서는 한국문화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실행하는 사회규범이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문화와 주관안녕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사회규범의 영향을 가정하는 학자들이 많다. 그러나 특출한 사회규범이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명세화해서

설명하고 실증연구를 통해서 가설들을 검증한 연구들은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서 개인이 규범에 일치되는 사회행동을 실제로 실행한 수준에 따라서 주관안녕이 달라지는 근거를 설명하는 이론을 제안하고, 실증연구를 통해서 검증한 결과를 다루기로 한다.

한편 주관안녕은 여러 선행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주관안녕이 신체건강, 사회적응,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관점에서 한국노인들의 주관안녕에 의해서 동일한 시점에 측정된 신체건강이 예측되는지 알아보고, 또한 종단연구를 통해서 주관안녕을 측정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이 측정치가 주관안녕이나 신체건강을 각각 예측하는데 기여하는지 알아본 결과도 다루기로 한다.

주관안녕의 구성요소와 측정

Diener 등(1999)은 주관안녕의 구성요소들로 유쾌감정, 불유쾌감정, 생활만족 및 영역별 만족을 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가운데 생활만족, 유쾌감정, 불유쾌감정의 세 요소들을 측정한다. 한덕웅과 표승연(2002)은 생활만족을 측정하는 주관안녕인지 생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측정하는 주관안녕정서를 구분하고, 이 두 측정치들을 사용하여 전체주관안녕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을 개발했다.

이 척도에서 주관안녕인지는 개인의 삶을 7점척도에서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다음 7개 문항들로부터 개인별 평균을 얻었다: 현재 당신의 삶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당신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당신은 얼마

나 행복합니까? 당신이 바라는 이상과 비교하면 현재 당신의 삶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현재 당신의 객관적 생활조건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당신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객관적 생활조건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당신이 바라는 이상과 비교하면 자신의 객관적 생활 조건은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이 주관안녕인지척도는 고등학생부터 75세에 이르는 2,880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1요인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에서 부합도 지수들이 모두 만족스러웠으며, 이 연구에서 신뢰도도 $\alpha=.92$ 로서 매우 높았다.

한편 본 연구의 주관안녕정서 척도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전반적 행복 정서의 경험을 측정하였다. 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접근은 Diener와 공동연구자들이 주관안녕정서를 6개 기본정서 범주들에 포함되는 8개 긍정정서들과 12개 부정정서들을 경험한 빈도로 측정하는 바와 다르다. 이들은 행복에 관련되는 정서들이 유쾌와 불쾌의 독립되는 두 정서 군집을 구성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관점은 Watson, Clark 및 Tellegen(1988) 등이 긍정-부정 정서를 단일차원의 정서들이라고 보는 이론과 달리 서로 독립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측정에 사용된 정서들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Diener와 공동연구자들이 긍정-부정정서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이론은 정서들을 별개의 요인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전체로 삶에 대한 정서를 알아보는 데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Diener 등이나 Watson 등의 척도들에 포함된 긍정정서들과 부정정서들은 정서경험의 심리학적 의미 차원들 가운데 긍정-부정의 차원에서 양극에 해당하는 정서용어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런데 이 정서용어들을 보면 긍정-부정의 차원 뿐만 아니라

역능성이나 활동성의 차원에서 긍정정서들과 부정정서들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 때문에 긍정과 부정의 정서 측정치들이 과연 역능성이나 활동성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비판적 관점에서 역능성이나 활동성의 차원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값을 지니면서 긍정-부정의 차원에서만 양극을 이루는 정서 용어들을 가려내어서 개인이 삶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들을 잘 나타내도록 척도를 제작하여 정서를 측정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들과 다른 관점에서 주관안녕정서를 정의하고 측정의 방법도 달리한다. 주관안녕인지는 삶의 질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니는 만족 수준을 측정한다. 이와 달리 주관안녕정서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전체 정서를 측정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살면서 실제로 경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서들을 측정하지 않고 일정한 시점에서 개인이 자신의 전체 삶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정서를 10개 문항의 양극척도들에서 7점척도로 평정하여 얻은 개인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전체 행복 정서를 평정하는 정서의 의미미분척도들로는 지루하다-재미있다, 비참하다-즐겁다, 쓸모없다-가치있다, 외롭다-화목하다, 공허하다-충만하다, 비판적이다-낙관적이다, 보람없다-보람있다, 운이 없다-행운이 따른다, 실망스럽다-만족스럽다, 불행하다-행복하다를 사용하였다. 이 주관안녕정서척도는 1요인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에서 부합도 지수들이 양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alpha=.94$ 로 높았다.

전체주관안녕척도는 주관안녕인지를 측정하는 7개 문항과 주관안녕정서를 측정하는 10개

문항들에서 각각 얻은 개인별 두 평균치들을 다시 평균하여 얻었다. 이 두 척도들이 전체로 1요인을 측정하는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에서 부합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 연구에서 신뢰도 역시 $\alpha=.95$ 로서 매우 높았다. 또한 전체주관안녕 척도가 주관안녕인지와 주관안녕정서를 측정하는 두 개 하위척도들로 구성되면서 아울러 전체로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여 전체 평균을 전체주관안녕의 측정치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검증하였는데 부합도 지수들이 모두 허용 기준에 가까웠다.

주관안녕 요소들의 상관관계

한덕웅(2006)이 19세부터 75세에 이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전국조사 연구에서 이 세 요소들간의 상관계수를 얻은 바에 따르면 전체주관안녕은 주관안녕인지와 $r=.85(p<.001)$, 그리고 주관안녕정서와 $r=.95(p<.001)$ 의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삶의 질을 인지적으로 평가한 주관안녕인지와 감정으로 측정한 주관안녕정서의 상관은 $r=.64(p<.001)$ 로서 두 측정치들이 비록 독립되지만 두 요소간의 상관은 높았다. 한덕웅(2004)이 199명의 대학생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전체주관안녕과 주관안녕인지는 $r=.81(.79)(p<.001)$, 전체 주관안녕과 주관안녕정서는 $r=.90(.84)(p<.001)$ 의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주관안녕인지와 주관안녕정서의 상관은 $r=.47(p<.001)$ 로서 비록 정적상관계수는 반복해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한국문화에서 삶의 만족과 주관안녕정서의 상관은 다른 요소들의 상관보다 낮았다. 그리고 대학생의 자료에서는 전국의 다양한 연령층을 포괄한 연구보다는 상관이 다소 낮아서 조사 대상에 따라서 주관안녕인지와 주관안녕정서의 상관이 다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주관안녕의 지속과 변화

본 연구에서는 주관안녕의 세 구성요소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되거나 지속되는지 알아보았다. 19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9개월 간격으로 두 시점에서 측정하였을 때 상관계수를 보면 전체주관안녕은 $r=.46(p<.001)$, 주관안녕인지는 $r=.60(p<.001)$, 그리고 주관안녕정서는 $r=.33(p<.001)$ 였다. 이 결과를 보면 개인의 주관안녕 세 측정치들이 9개월 후에도 각각 일관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주관안녕인지와 달리 주관안녕정서는 비록 일관되지만 시점이 떨어지면 상관이 다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시간 간격이 있더라도 주관안녕인지의 측정치는 긴 시간 동안 일관성이 지속되는 바와 달리 주관안녕정서는 삶에 대한 전반적 정서를 측정하더라도 일시적 사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시점이 변화하면 상당히 달라짐을 시사한다.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와 인구통계 요인들

인구통계 변인들과 주관안녕의 관계

한덕웅(2005)이 전국에서 19세부터 75세에 이르는 1,2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개인차 요인 가운데 인구통계 변인들과 주관안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과 주관안녕의 상관관계

이 표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 주관안녕의 수준이 유의하게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 인구통계 변인들과 주관안녕의 단순상관계수 (N=2,249)

인구통계변인	전체주관 안녕	주관안녕 인지	주관안녕 정서	인구통계변인	전체주관 안녕	주관안녕 인지	주관안녕 정서
성별	.08 ***	.10 ***	.05 *	나의 형제	.05	.01	.06 *
나이	.08 ***	.04	.09 ***	나의 자매	.04	.02	.05
경제상태	.23 ***	.31 ***	.15 ***	우리부부의 아들	-.01	.00	-.02
결혼상태	-.01	.04	-.02	우리부부의 딸	-.12 **	-.09 *	-.12 **
부모모두생존	-.03	.01	-.04	배우자부모 모두생존	.11 **	.10 **	.10 **
나의 부친	-.04	.01	-.05 *	배우자의 부친	.11 **	.11 **	.10 **
모친	.00	.01	-.01	배우자의 모친	.06	.05	.06

* p<.05, ** p<.01, *** p<.001, 이하 표에서 동일

면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생활만족을 측정하는 주관안녕인지, 전체 생활에 대한 주관안녕정서 및 전체주관안녕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한덕웅과 표승연(2002)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성별은 주관안녕의 세 지표들과 상관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적어도 청년기로 한정하면 성별에 따라서 주관안녕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Shin, Ahn, Kim 및 Lee(1983)가 80년대에 보고한 국내의 전국조사 연구에서도 성별과 주관안녕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주관안녕을 측정한 기법이 본 연구와 다르기는 하지만 이 두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주관안녕의 차이가 최근에 심화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별과 주관안녕의 관계를 다룬 결과들을 통합분석(meta-analysis)한 Lucas와 Gohm(2000)의 연구에 따르면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생활만족을 평가한 평균으로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Diener처럼 정서경험

을 유쾌정서와 불쾌정서로 나누어서 주관안녕을 측정한 경우에는 모두 여성의 평균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정적정서와 부정적정서 모두에서 정서경험이 높았다는 Lucas와 Gohm의 분석 결과와 일치된다. 특히 서구문화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불유쾌 정서가 남성들보다 높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 되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다르다(예: Lucas, & Gohm, 2000; Brody & Hall, 1993; Manstead, 1998).

Lucas와 Gohm은 성별을 다룬 연구들이 주로 서구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동양문화에서는 드물기 때문에 문화에 따른 보편성이나 차별성을 알아내려면 동양문화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한국문화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안녕정서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을 인지적으로 평가한 주관안녕인지도 높았다. 이 결과는 한국문화에서 성별에 따라서 주관안녕이 달라진 원인을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Triandis(1989)는 집합주의 문화에서 여성이 성역할 기대에 따르도록 순종을 촉구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주관안녕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시

사한다. 필자는 한국문화에서 성역할 기대요인과 아울러 남성이 여성보다 현실에서 사회적 지위와 아울러 자원의 소유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개연성이 낮은 요인도 작용했다고 본다.

연령과 주관안녕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연령과 주관안녕의 상관계수를 얻은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문화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주관안녕들이 높아져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연령별로 주관안녕의 평균을 보면 7점척도에서 10대는 전체주관안녕 4.13($SD=1.02$, 주관안녕인지, 4.12, $SD=1.02$, 주관안녕정서, 4.14, $SD=1.21$); 20대에서는 전체 주관안녕 4.40($SD=0.98$, 인지 4.33, $SD=0.95$, 정서 4.44, $SD=0.95$); 30대는 전체주관안녕 4.70($SD=0.93$, 인지 4.58, $SD=0.90$, 정서 4.80, $SD=1.12$); 40대는 전체주관안녕 4.57($SD=0.97$, 인지 4.42, $SD=1.00$, 정서 4.68, $SD=1.10$); 50대는 전체주관안녕 4.49($SD=0.91$, 인지 4.39, $SD=0.93$, 정서 4.57, $SD=1.06$), 그리고 60대는 전체주관안녕 (5.47($SD=0.89$, 인지 5.07, $SD=1.67$, 정서 5.78, $SD=0.64$)였다. 이 결과에서 60대 이전보다 60대에서 행복 수준이 높아져 전체로는 연령과 행복이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1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는 비록 낮으나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60대에서만 주관안녕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 보고된 외국의 연구들을 보면, Wilson(1967)이 초기에 분석한 바와 상반되게, 청년보다 노년에서 주관안녕이 높아져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Diener, et al., 1999). 그러나 Lucas와 Gohm이 국제 자료를 통합분석한 결과에서는 연령과 생활만족의 상관이 유의하

지 않았으나, 긍정정서와는 부적으로 유의했고, 부정정서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좋아졌다. 또한 주관안녕으로 삶의 만족을 측정된 결과들도 연령과 상관이 일관되지 않았다. Okma와 Veenhoven(2001)의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유럽 8개 국가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18세부터 90세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변동이 없었으나 주관안녕의 정서에서는 청년보다 노년의 평균이 낮아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유쾌정서와 불쾌정서의 차이로 개인의 감정균형 수준을 측정하게 되면 18세에서 48세까지 다소 하강하다가 그 후에는 급속히 하강했다.

한편 Diener와 Suh(2000)가 43개국 60,000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생활만족을 측정한 주관안녕인지에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주관안녕을 유쾌정서로 측정하게 되면 20세에서 80세에 이르기까지 완만하게 하강했다. 반면에 불쾌정서들로 측정하면 20대부터 60세까지 다소 하강하다가 70, 80세에 이르면 다소 상승했다.

한창수(2005)의 연구에서 평균 70세가 되는 706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평가한 사람들보다 나이가 적었다. 이 결과는 현재 한국에서 고령의 노인들인 경우에 나이가 많을수록 덜 행복함을 시사한다.

한편 국내에서 80년대에 이루어진, Shin, Ahn, Kim과 Lee(1983)의 전국조사 연구에서 주관안녕을 생활영역별 만족과 불만족, 삶의 기쁨, 걱정, 걱정, 구성점수들로 측정했을 때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데, 이 차이가 두 시점에서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생활조건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혹은 이

변인들에서 사회범주별 기대나 비교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인지 장래 연구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NG, Woo, Kwan, Chong 및 Lai(2005)의 연구에서는 40세에서 74세에 이르는 홍콩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Cantril(1965)의 지수와 $r=.28\sim.36$ 의 상관을 보이는 성공적 노화지수를 개발했다. 이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지수는 연령과 $r=.28(p<.001)$ 의 부적상관을 보였다고 보고됐다. 이 결과는 홍콩의 중년과 노년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안녕이 낮아짐을 시사한다.

연령에 따라서 주관안녕이 달라지는 심리학적 배경을 설명하는 이론들 가운데 나이에 따라서 수입, 사회지원 등 객관적 생활조건이 좋아지는데 따른 차이로 설명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정서의 자기조절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이 관점들의 상대적 설명력 역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문화에서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알아내는 일이 연구할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주관안녕정서가 높아졌는데 장래 연구에서 이 결과가 한국문화에서 현재까지 경로사상이나 효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났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상태와 주관안녕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경제상태는 5점척도로 평가하였는데, 이 요인은 주관안녕인지와 상관이 $r=.31$, 주관안녕정서와 $r=.15$, 그리고 전체주관안녕과 $r=.23$ 으로 모두 유의했다. 이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수입으로 측정한 경제 상태와 주관안녕의 관계는 대체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Diener와 Oishi(2000)의 통합분석에서 42개 국가별 수입평균과 삶의 만족간 상관이 $r=.69(p<.001)$ 로 유의하여 국가의 경제 수준이 국민의 주관안녕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개인이 일정한 수준의 경제 수준에 이르기 이전과 달리 일정한 수준으로 수입이 높아진 후에는 주관안녕과 상관이 낮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Diener와 Oishi(2000)의 통합분석에서 수입의 증가와 주관안녕의 상관도 살펴보았는데 수입이 증가되면서 정적정서뿐만 아니라 생활방식도 변화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역시 증가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이 아니라 경제 수준을 평정한 측정치와 주관안녕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 결과 역시 한국에서 현재 국민 일인당 소득이 22,000불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요인이 여전히 중요해서 주관안녕과 정적상관을 보였는지 장래 연구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수입이 주관안녕에 기여하는 근거로는 수입이 좋아지면서 개인의 목표나 기대가 변화되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일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받거나 혹은 억제해야 하는 자원의 기능(Williams, 2002)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학력과 주관안녕의 상관관계

한편 한덕웅과 표승연(2002)이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 학력이 높은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주관안녕이 높았다(전체주관안녕, $r=.11$, $p<.001$; 주관안녕

인지, $r=.11$, $p<.001$; 주관안녕정서, $r=.08$, $p<.01$). 이 결과가 학력이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나타났는지 혹은 한국사회에서 고등학생들이 공통으로 겪는 학업의 압력 때문에 나타났는지는 장래 연구에서 알아낼 필요가 있다.

결혼상태와 주관안녕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결혼상태와 주관안녕의 관계를 다룬 결과를 보기로 하자.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 사람이라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관안녕이 높지 않아서 결혼과 행복은 무관했다. 몇몇 연구들에서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하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다 (Diener et al, 1999). 그러나 박군석, 한덕웅, 이주일(2005b)의 연구를 보면 60세부터 80대에 이르는 한국노인들의 결혼만족이 동시점 ($r=.36$, $p<.001$)이거나 1년 후 종단연구 중다회귀 $\beta=.08$, $p<.001$)에서 모두 주관안녕에 유의하게 기여했다. 한편, 한창수(2005)의 연구에서는 평균 70대 노인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보다 행복 수준이 높았다. 이 연구 결과들로부터 폭 넓은 연령대를 포괄한 경우와 달리 적어도 한국노인에서는 결혼상태나 결혼만족이 주관안녕에 좋은 방향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결혼상태와 주관안녕의 상관관계가 달라진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인과 달리 젊은 연령층을 포괄하면 결혼이 행복에 기여하는 요소가 아님을 시사한다.

가족관계와 주관안녕의 상관관계

앞에서 다룬 인구통계변인들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친척들로 이루어진 사회관계가 주관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 보았다. 특히 가족관계 가운데 부모와 관계, 형제자매와 관계, 그리고 장년에 이른 이후에는 자녀들과 관계가 주관안녕에 중요하다고 가정했다. 또한 한국문화에서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생활에서 친가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들과도 자주 교류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다.

가족관계와 주관안녕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친이 생존한 경우에는 주관안녕 정서가 오히려 낮았고 ($r=-.05$, $p<.05$), 모친이 생존한 경우에는 주관안녕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이룬 경우에 아들이 주관안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바와 달리, 딸은 주관안녕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딸의 존재와 주관안녕인지의 상관 $r=-.09$, 주관안녕정서 $r=-.12$, 그리고 전체주관안녕 $r=-.12$ 로서 딸이 있으면 없는 경우보다 주관안녕이 낮았다. 이 결과가 나타난 배경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부모에게는 아들보다 딸로 인해서 요구되는 물질이나 심리의 부담이 더 큼을 시사한다.

한편 배우자의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에는 개인의 주관안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주관안녕인지 $r=.10$, $p<.01$, 주관안녕정서 $r=.10$, $p<.01$, 전체 주관안녕 $r=.11$, $p<.01$). 이 결과는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하면 물질이나 심리의 측면에서 여러 부담을 초래하는 수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사회지원을 받는 측면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배우자 부모의 생존에서 배우자의 부친과 모친의 생존을 구별해 보면, 배우자의

모친과 달리, 배우자의 부친이 생존한 경우에만 주관안녕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주관안녕 인지 $r=.11$, $p<.01$, 주관안녕정서 $r=.10$, $p<.01$, 전체 주관안녕 $r=.11$, $p<.01$). 이 결과는 배우자의 부친이 생존한 경우에 경제나 사회 활동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장래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인구통계 변인들이 한국문화에서 주관안녕과 상관을 보이는 심리학적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면서 필자가 제시한 의견들을 가설로서 직접 검증하게 되면 지지 여부와 아울러 다른 해석들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정 요인들

정서 경험과 주관안녕의 관계

Diener와 공동 연구자들은 주관안녕에 관련되는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유쾌와 불쾌의 정서들을 구별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다시 말하면 주관안녕 정서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랑, 기쁨, 두려움, 분노, 수치, 슬픔의 6개 범주에 속하는 정서들 24개를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긍정정서들 가운데 사랑의 정서로는 애정, 사랑, 돌봄, 정다움, 그리고 기쁨에는 기쁨, 행복, 만족, 자부심을 경험한 빈도나 강도를 측정했다. 한편 두려움에는 두려움, 걱정, 불안, 안절부절 못하다가 포함되고, 분노에는 화나다, 짜증나다, 혐오하다, 격분하다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수치로는 수치, 죄책감, 후회, 당황, 당혹감이 포함되고, 슬픔에는 슬픔, 외

로움, 불행, 우울을 측정하였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문화에서 공통으로 경험하는 이른바 기본정서들에 의해서 주관안녕을 규정하는 관점은 이론의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개인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기본정서들의 빈도가 전체 삶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경험과 구별되기 때문에 각 정서의 경험 이 주관안녕정서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일은 실증연구의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먼저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감정들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주관안녕정서의 측정치가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와 같이 제작된 주관안녕정서 척도의 측정치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양극 정서의 측정치들과 동일한 차원에 속하면서 잘 변별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긍정 부정 차원의 정서 측정치들만으로 주관안녕 정서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유쾌-불쾌의 두 정서 경험들을 측정한 값들이 개인이 삶에 대해서 전체로 느끼는 정서를 측정한 값들과 변별되어서 서로 다른 요소들을 측정한다면 긍정정서, 부정정서, 주관안녕정서의 측정치들이 실제로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1,309명을 대상으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경험한 빈도와 주관안녕정서가 어떤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정서경험의 빈도와 주관안녕의 단순상관 관계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를 경험한 빈도가 각각 주관안녕의 세 측정치들과 어떤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정서의 수를 달리하여 얻은 단순상관계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정서를 측정된 용어들의 수를 달리하여 주관안녕과 상관을 살펴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다양한 정서 경험들을 포괄한 경우와 비교해서 이보다 적은 수로 측정된 경우에 상관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먼저 이 표에서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를 각각 100개이거나 혹은 60개 용어로 측정한 값들이 전체주관안녕, 주관안녕인지, 주관안녕정서와 각각 어떤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보자. 부적정서 100개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들은 전체주관안녕과 $-.41$, 주관안녕인지와 $-.37$, 주관안녕정서와 $-.36$ 의 상관계수를 보여서 부적정서의 경험이 높을수록 주관안녕 세 측정치들이 모두 낮았다. 이 상관계수들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부적정서와 주관안녕정서의 상관이 나 혹은 부적정서와 삶의 만족을 측정한 주관안녕인지의 상관도 모두 유사하였다. 정적정서 100개로 측정한 경우에 전체주관안녕과 $r=.37$, 주관안녕인지와 $r=.37$, 주관안녕정서와 $r=.30$ 의 정적상관계수들을 얻었다

한편 부적정서를 60개로 측정한 경우에도 전체주관안녕과는 $r=-.42$, 주관안녕인지와는 $r=-.37$, 주관안녕정서와는 $r=-.37$ 로서 역시 부

적정서가 높을수록 주관안녕이 낮았다. 정적정서 60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 전체주관안녕과 상관이 $r=.40$, 주관안녕인지와 $r=.39$ 주관안녕정서와 $r=.32$ 로 모두 100개 정서로 측정하였을 때와 비교해서 유사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표 2에서 정적 및 부적 정서들을 각각 기본정서 10개씩으로 측정하고 이 측정치들이 동일한 시점이거나 혹은 9개월 후에 측정한 주관안녕과 어떤 상관을 보였는지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주관안녕을 동일 시점에서 측정하면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를 각각 100개 용어들로 측정한 경우와 유사한 크기의 상관계수들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정서의 범주들로 인간이 흔히 경험하는 기본정서들을 포함하게 되면 비록 간략한 척도이지만 많은 정서들을 측정한 경우와 비슷하게 주관안녕과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데 유용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서와 주관안녕의 상관을 다룬 이 연구결과들로부터 필자가 삶에 대한 전체 정서를 주관안녕정서로 측정한 값들과 정적정서($r=.30\sim.39$)나 부적정서($r=-.36\sim.38$)와 상관계수를 구한 값들이 삶의 만족을 측정한 주관안녕인지와 상관보다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2. 정서경험과 주관안녕의 단순상관계수

	정서시점	전체주관안녕	주관안녕인지	주관안녕정서
부적정서 100	동시	$-.41^{***}$	$-.37^{***}$	$-.36^{***}$
정적정서 100	(1,309)	$.37^{***}$	$.37^{***}$	$.30^{***}$
부적정서 60	동시	$-.42^{***}$	$-.37^{***}$	$-.37^{***}$
정적정서 60	(1,309)	$.40^{***}$	$.39^{***}$	$.32^{***}$
부적정서 10	동시	$-.44^{***}$	$-.39^{***}$	$-.38^{***}$
정적정서 10	(199)	$.48^{***}$	$.46^{***}$	$.39^{***}$
부적정서 10	종단	$-.27^{***}$	$-.26^{***}$	$-.20^{***}$
정적정서 10	(199)	$.32^{***}$	$.40^{***}$	$.19^{***}$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정서의 빈도가 비록 주관안녕정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만 항상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경험한 기본정서를 10개 용어들로 측정하여 그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종단적으로 주관안녕을 측정한 상관도 표 2에서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보면 부정적정서는 전체주관안녕과 $r=-.27$, 주관안녕인지와 $r=-.26$, 그리고 주관안녕정서와 $r=-.20$ 이었다. 그리고 정적정서는 전체주관안녕과 $r=.32$, 주관안녕인지와 $r=.40$, 그리고 주관안녕정서와 $r=.19$ 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9개월 전에 측정한 10개 기본정서의 경험빈도와 주관안녕의 상관이 동시점에서 측정한 경우보다는 낮아지지만 여전히 유의한 예측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과 정적-부적 정서경험의 관계

문화에 따라서 주관안녕이 달라지는 현상을 다룬 연구들 가운데 지금까지 집합주의와 개인주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들에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적 준거가 자신의 행복을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Diener & Suh, 2000). 이 때문에 개

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이 생활만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겪은 정서경험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로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삶의 만족을 나타내는 주관안녕인지와 정서경험의 상관이 매우 높다고 가정한다. 이와 달리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사회규범이나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경험한 정서와 주관안녕인지의 상관은 적어도 개인주의 문화보다 낮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을 인지적으로 평가한 주관안녕인지와 삶에 대한 정서를 측정한 주관안녕정서의 상관관계가 문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주제에 관해서 본 연구에 실린 여러 연구들에서 얻은 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표 3).

먼저 전국에서 19세부터 75세에 이르는 2,250명을 조사한 한덕웅(2005)의 자료에서 주관안녕인지와 주관안녕정서의 상관계수 $r=.64$ ($p<.001$)였다. 한편 고등학생과 대학생 1,30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덕웅과 표승연(2002)의 연구에서는 긍정정서를 100개 용어로 평정한 측정치는 주관안녕인지와 $r=.37$ ($p<.001$)이었고, 긍정정서 60개로 측정하면 $r=.40$ 이었다.

표 3. 시점에 따른 주관안녕인지와 정적-부적 기본정서 경험 및 주관안녕의 단순상관계수

		정적정서		부적정서		주관안녕정서		
		1주경험	3개월 경험	1주경험	3개월 경험			
주관안녕 인지 (삶의 만족)	동시점	.57***	.52***	-.37***	-.35***	.64***	.67***	.70***
	9개월후	.47***	.37***	-.34***	-.17***	.58***	.47***	.34***
						.20*** (인지→정서)		
						.28*** (정서→인지)		

그리고 부정정서에서는 100개 용어로 측정된 정서의 측정치와 주관안녕인지의 상관계수는 $r = -.37(p < .001)$ 이었고, 60개로 측정해도 $r = -.37$ 로 동일했다. 한편 필자가 제작한 간편정서 척도를 사용하여 이른바 기본정서들에서 지난 3개월 동안 경험한 정적정서와 부정정서를 측정하고 9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관안녕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긍정정서와 주관안녕인지의 상관 $r = .40(p < .001)$ 이었고, 부정정서와 주관안녕인지는 $r = -.26(p < .001)$ 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대학생 39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른 연구(한덕웅, 장은영, 2003a)에서도 주관안녕인지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관안녕정서의 상관계수 $r = .58(p < .001)$ 로 유사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 대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또 다른 연구(한덕웅, 장은영, 2003b)에서도 이 둘의 상관 $r = .67(p < .001)$ 이었다. 대학생 363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또 다른 연구(한덕웅, 박준호, 2005)에서는 $r = .70(p < .001)$ 으로 역시 주관안녕인지와 주관안녕정서의 상관이 매우 높았다.

한덕웅(2004)의 여러 연구에서는 기본정서척도를 사용하여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10개 용어씩으로 측정하고 동일 시점에서 측정된 주관안녕인지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며, 또한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종단적으로 측정된 주관안녕인지와는 어떤 상관을 보이면서도 알아보았다(표 3).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주일 동안이나 혹은 3개월 동안에 경험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동일시점의 주관안녕인지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일주일이나 3개월 동안 경험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측정치들은 그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된 주관안녕인지와 상관관계수의 크기가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유의도

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결과들로부터 정서 경험들을 통합하여 판단한 주관안녕정서가 동시점과 아울러 9개월이 지난 후에도 모두 주관안녕인지를 예측하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적정서와 부정정서 용어들을 각각 10개씩 사용하여 정서를 측정된 값이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된 주관안녕인지와 최고 $r = .57$ 부터 최저 $r = .17$ 까지 상당한 변이를 보여서 한국문화에서 정적정서와 부정정서의 측정치들은 삶에 만족을 측정하는 주관안녕인지와 상관이 크게 높지 않았다. 장차 이 결과를 개인주의 문화에서 얻은 자료와 비교하게 되면 과연 한국문화에서 이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은지도 알아볼 수 있다.

정서경험과 주관안녕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에서 정적정서나 부정정서의 측정치들을 얻을 때 구체적으로 여러 정서들 각각의 경험빈도를 측정하거나 혹은 정적정서와 부정정서의 두 범주별로 전체 빈도의 측정치를 얻는데 따르는 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다(Diener & Lucas, 2000, 328-329 쪽). 예를 들면 필자가 제작한 기본정서척도에서 10개 정서들에서 각각 경험한 빈도를 정적정서의 측정치로 사용할 수도 있고 10개 정서의 경험빈도를 합한 값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필자는 이 두 기법으로 측정된 정서의 경험빈도 값들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종단적으로 주관안녕을 종다예측하는데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도 알아보았다. 먼저 각각 10개 정서들에서 경험빈도를 측정하여 정적정서와 부정정서 각각의 전체 측정치들을 얻으면 이 두 측정치들이 9개월 후에 전체주관안녕을 설명하는 전체 변량 가운데 22.2%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두 전체정서 측정치들이 주관안녕인지의 전체 변량 가운데 22.5%, 그리고 주관안녕정서에서는 11.1%를 설명하였

다. 물론 이 두 전체정서의 측정치들로 세 주관안녕 지표들을 각각 중다예언할 때 모두 유의한 표준회귀계수들(전체주관안녕: 긍정정서, $\beta=.41$, $p<.001$, 부정정서 $\beta=-.20$, $p<.001$; 주관안녕인지: 긍정정서, $\beta=.42$, $p<.001$, 부정정서 $\beta=-.18$, $p<.01$; 주관안녕정서: 긍정정서 $\beta=.28$, $p<.001$, 부정정서 $\beta=-.16$, $p<.05$)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 적어도 한국 대학생들에서 긍정정서의 유쾌한 경험빈도가 부정정서보다 9개월 후에 측정한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데 크게 기여함을 시사한다.

정적정서와 부정적정서의 균형과 주관안녕의 상관관계

한편 주관안녕의 정서를 정적정서와 부정적정서로 나누어서 측정하는 경우에 두 측정치들이 삶의 만족과 각기 다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두 측정치에서 얻은 결과가 일관되게 해석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정적정서의 경험빈도에서 부정정서의 경험 빈도를 뺀 균형지수가 높으면 행복이 높다는 관점도 제안된 바 있다(Bradburn, 1969).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1,30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이 경험한 정적정서와 부정정서의 측정치들에서 차이가 작으면 균형지수가 높고 차이가 클수록 균형지수가 낮도록 채점하고 이 지수와 주관안녕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정적정서와 부정정서의 균형지수와 전체 주관안녕의 상관은 $r=.59$, $p<.001$, 주관안녕인지와는 $r=.54$, $p<.001$, 그리고 주관안녕정서와는 $r=.49$, $p<.001$ 의 상관을 얻었다. 이 결과는 한국문화에서 정적정서 경험의 빈도에서 부정정서의 경험 빈도를 뺀 값이 큰 사람일수록 주관안녕의 세 지표들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비록 문화에 따라서 정적정서나 부정적정서를 유발하는 사건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들로부터 부정정서보다 정적정서를 경험한 빈도가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현상은 문화와 상관없이 보편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에 따라서 정적정서와 부정정서를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 문화에서 어떤 요인들이 이 균형점수에 기여하는지 장래 연구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분노, 우울, 불안과 주관안녕의 관계

한편 자주 사용되는 불안, 분노, 우울검사로 측정한 정서 경험과 주관안녕의 상관계수도 알아보았다(한덕웅, 박준호, 2003; 한덕웅, 박준호, 김교헌, 2004). 이 연구들에서 전검구, 한덕웅, 김교헌이 제작한 Spielberg의 상태분노는 전체주관안녕($r=-.38$, $p<.001$), 주관안녕인지($r=-.36$, $p<.001$), 주관안녕정서($r=-.34$, $p<.001$)와 각각 모두 유의한 부정상관을 보여서 이 정서들이 행복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기여함을 시사한다. 특성분노 역시 전체주관안녕($r=-.18$, $p<.01$), 주관안녕인지($r=-.16$, $p<.01$), 그리고 주관안녕정서($r=-.17$, $p<.01$)와 모두 유의한 부정상관을 보였으나, 상태분노의 측정치보다는 상관이 낮아서 한 시점에서 행복이 만성적, 특성분노보다 일시적 상태분노와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노억제 역시 높을수록 전체주관안녕($r=-.30$, $p<.001$), 주관안녕인지($r=-.27$, $p<.001$), 및 주관안녕정서($r=-.29$, $p<.001$)가 각각 낮아서 부정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분노표출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안녕의 세 측정치들이 모두 낮아서 역상관들을 보였다(전체주관안녕, $r=-.12$, $p<.01$; 주

관안녕인지, $r=-.10$, $p<.05$; 주관안녕정서, $r=-.11$, $p<.05$). 이 결과는 비록 분노표출을 통해서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한국문화에서 분노표출이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분노의 표출을 자기제어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분노통제는 주관안녕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전체주관안녕, $r=.05$, n.s.; 주관안녕인지, $r=.02$, n.s.; 주관안녕정서, $r=.06$, n.s.). 분노표출의 역기능과 달리 분노통제와 주관안녕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근거는 장차 상황에 적합한 자기제어의 관점에서도 연구할 수 있다.

유학의 4단7정 정서와 주관안녕의 상관

한덕웅(2003b)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유학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4단7정의 정서들이 주관안녕과 어떤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유학의 4단7정론에서는 4단이 사회관계에서 일관되게 순기능을 하는 바와 달리 7정은 상황에 따라서 역기능을 보이거나 혹은 순기능을 보이기도 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을 확장하면 4단 정서들에 포함되는 측은, 수오, 사양 및 시비의 정서경험은 사회관계에서 순기능을 지니므로 개인의 주관안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로 옮길 수 있다. 반면에 7정에 포함되는 기쁨(喜), 화남(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惡), 욕망(慾)은 상황에 따라서 주관안녕에 역기능을 보이거나 혹은 순기능을 보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역기능을 보인다는 가설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대학생 1,309명의 조사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이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4단7정 각각에 포함되는 정서들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는 정서용어들을

가려내어서 각 척도들을 제작하였다. 이 척도들을 사용하여 개인이 지난 1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각 정서들을 경험한 정도를 7점척도에 평정하고 주관안녕의 측정치도 얻었다. 이 연구에서 얻은 각 정서의 경험빈도와 주관안녕의 단순상관을 보면 4단7정에 포함되는 모든 정서들이 주관안녕의 세 지표들과 $r=-.34$ 부터 $r=.37$ 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상관계수들을 보였다. 이는 유학심리학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4단7정의 경험이 인간의 삶에서 행복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정서들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4단의 정서들이 주관안녕에서 순기능을 보이며 7정 정서들은 상황에 따라서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보이지만 역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정서들로는 4단 가운데 사양뿐이었으며, 7정 가운데는 기쁨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서들은 역상관을 보여서 지지되었다. 또한 4단 7정에 포함되는 정서들 가운데 특히 주관안녕의 중다예측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들을 찾아낸 결과를 보면 4단 가운데 사양($\beta=.07$)와 시비($\beta=.04$), 그리고 7정 가운데 기쁨($\beta=-.21$), 화남($\beta=-.001$), 슬픔($\beta=-.12$), 두려움($\beta=-.05$), 애정($\beta=.06$), 미움($\beta=-.05$)이 유의하였다. 이 가운데 시비, 화남, 슬픔, 두려움, 미움은 행복에 부정적으로 기여했고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이 연구는 한국유학심리학의 정서심리이론을 주관안녕의 관점에서 다룬 유일한 연구이다. 장래 연구에서는 특히 4단 가운데 기각된 가설들이 지지되는 조건들을 찾아내어서 현대 사회 생활에서 4단7정론이 주관안녕을 설명하는데 시사하는 바를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통 한국의학에서 중요한 정서

한편 한덕웅(2003b)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의학에서 신체질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정서들이 주관안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 가설도 검증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주관안녕이 근심(전체주관안녕, $r=-.25$, $p<.001$, 주관안녕인지, $r=-.23$, $p<.001$, 주관안녕정서, $r=-.21$, $p<.001$), 염려(전체주관안녕, $r=-.14$, $p<.001$, 주관안녕인지, $r=-.11$, $p<.001$, 주관안녕정서, $r=-.13$, $p<.001$), 걱정(전체주관안녕, $r=-.24$, $p<.001$, 주관안녕인지, $r=-.21$, $p<.001$, 주관안녕정서, $r=-.22$, $p<.001$), 놀라다(전체주관안녕, $r=-.08$, $p<.01$, 주관안녕인지, $r=-.09$, $p<.001$, 주관안녕정서, $r=-.07$, $p<.05$), 그리고 떨리다(전체주관안녕, $r=-.11$, $p<.001$, 주관안녕인지, $r=-.10$, $p<.001$, 주관안녕정서, $r=-.10$, $p<.001$)와 모두 유의한 부적상관계수를 보였다.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인지 및 행동반응과 주관안녕의 상관관계

한덕웅과 박준호(2005)의 연구에서는 생활에서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사건을 경험하고 이 사건에 관해서 생각억제, 생각회피, 주의분산, 반복생각 및 자기노출을 하게 되면 각각 주관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조

사연구의 결과를 보고했다. 전국에서 1,02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연구에서 위의 다섯 요인들과 주관안녕의 세 측정치들 간의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면 스트레스 사건 이외에 다른 일에 주의를 집중하는 주의분산만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주관안녕인지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고 나머지 14개 상관계수들은 모두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반복해서 생각한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안녕의 측정치들이 모두 낮아서 역상관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생각회피나 생각억제가 각각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안녕이 낮아서 역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스트레스 사건에 관해서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려고 다른 일에 몰두하여 주의분산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안녕정서가 높아서 순기능을 보였다. 주의분산으로 인한 주관안녕의 순기능은 주관안녕인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를 유발한 사건에 관해서 타인들에게 자기노출하거나 주의분산한 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정서를 완화시켜 주는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해석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장차 Diener와 공동연구자들처럼 주관안녕정서를 정적정서와 부정정서로 구분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사고과정의 요인들과

표 4. 반복생각, 생각회피, 생각억제, 주의분산, 자기노출과 주관안녕의 단순상관계수

	반복생각	생각회피	생각억제	주의분산	자기노출
전체주관안녕	-.17***	-.12***	-.13***	.07*	.09**
주관안녕인지	-.13***	-.08**	-.08*	.05	.10**
주관안녕정서	-.15**	-.12***	-.13***	.07*	.07**

주관안녕의 단순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연구의 가설들이 거의 모두 지지되었다. 다시 말해서 반복생각, 생각회피, 생각억제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각각 주관안녕은 낮았으며, 주의분산과 자기노출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안녕이 높았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복생각, 생각회피, 생각억제, 주의분산 및 자기노출 가운데 주관안녕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전체주관안녕에는 반복생각($\beta = -.18, p < .001$)이 역기능으로 기여하고, 주의분산($\beta = -.10, p < .05$)과 자기노출($\beta = .11, p < .001$)은 좋은 방향으로 설명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삶의 만족을 측정한 주관안녕인지에는 반복생각($\beta = -.16, p < .001$)이 역기능을 보이고, 자기노출($\beta = .12$)은 좋은 방향으로 기여했다. 또한 주관안녕정서에서도 반복생각($\beta = -.16, p < .000$)은 부정적으로 기여하고, 자기노출($\beta = .09, p < .01$)은 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리고 주의분산($\beta = .10, p < .05$) 역시 긍정적으로 기여하였고 생각억제 역시 주관안녕정서에 부정적으로 기여하는 추세를 보인 요인이었다. 다섯 사고요인들 가운데 생각회피만은 주관안녕의 세 지표들을 각각 중다예측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하지 못했다.

한덕웅, 박준호 및 김교현(2004)의 연구와 아울러 앞의 중다회귀분석에서 반복생각과 자기노출이 일관되게 주관안녕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였는데, 이 두 요인들은 또한 서로 상호작용하여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침을 알아냈다(주관안녕전체, $\beta = -.10, p < .01$; 주관안녕인지, $\beta = -.09, p < .05$; 주관안녕정서, $\beta = -.08, p < .05$). 이 결과를 보면 자기노출의 수준은 높으면서 반복생각한 빈도는 낮은 사람들이 다른 조건

의 사람들보다 주관안녕이 높았다. 이 결과는 특히 깊은 자기노출을 통해서 반복생각의 빈도가 낮아진데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인과경로에 관해서는 장래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기차이와 조절초점

주관안녕의 주제를 다루기 시작한 초기부터 자기차이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들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면 Campbell(1981, 24쪽)은 상황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이 개인의 현재 상태와 비교해서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혹은 마땅히 향유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상태의 간격과 함수관계를 이룬다고 보았다. Diener와 공동연구자들(1999)도 주관안녕의 결정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와 유사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 관점을 자기차이이론에서 보면 실제자기와 이상 혹은 당위 자기의 차이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필자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서 자기차이와 조절초점이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미친 영향을 다룬 결과들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강혜자와 한덕웅(2005)의 조사연구에서는 이상자기와 실제자기의 차이나 혹은 당위자기와 실제자기의 차이가 일정한 경우에 차이의 성질에 따라서 부정정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자기정서로서 부정정서로는 불안과 우울을 다루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얻은 이 두 측정치들을 합한 값을 부정정서 측정치로 사용했다. 이 종합점수로 보면 이상자기와 실제자기의 차이값은 물론이고 당위자기와 실제자기의 차이값이 클수록 부정정서가 높았다. 이 결과는 Diener, Campbell, Higgins의 이론에서 공통으로 현상태

와 바라는 상태의 차이가 작을수록 만족수준이 높으며 이 차이가 클수록 불만족 수준이 높다는 차이가설이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나영심과 한덕웅(2005)의 연구에서는 Higgins(1998)의 조절초점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 개인의 현재 상태와 바라는 상태의 자기차이가 일정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지침과 조절초점이 조화되거나 불일치되는 조건에서 정서가 달라진다는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연구에서 당위지침을 형성한 조건에서 자기차이를 경험하게 되면 조절초점들과 상관없이 부적정서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주관안녕의 정서가 낮았다. 그러나 자기지침이 점화되지 않거나 이상자기지침이 특출한 조건들에서 예방조절초점이 점화되면 항상조절초점으로 점화된 조건들보다 부적정서가 높았다.

이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에게 예방조절초점을 점화한 조건들에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자기차이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지침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부적정서가 높아서 불행의 수준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자기지침이 특출하지 않거나 이상자기지침을 지닌 조건에서는 예방초점을 점화하여 자기지침과 조절초점이 조화되지 않은 경우에만 자기차이가 부정정서 경험을 높은 수준으로 유발하였다. Diener 등(1999)이 행복이나 불행을 현상상태와 이상상태의 차이로 설명하는 바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크기의 자기차이를 경험하더라도 특히 자기지침과 조절초점이 조화되지 않는 조건에서 불행의 정서 경험이 높아짐을 알아낸데 의의가 있다.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과정 요인들

사회비교가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은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사회규범의 영향과 아울러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높아서 사회비교에 따라서 주관안녕이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 가정과 관련해서 한국문화에서 타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필자와 공동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간략하게 다루기로 한다.

한덕웅과 장은영(2003b)의 연구에서 사회비교의 동기들과 아울러 이 동기들이 충족된 수준이 주관안녕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이 표를 보면 사회비교에서 주관안녕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단면들을 알 수 있는데, 대체로 높지 않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 가운데 전반적 비교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체주관안녕, 주관안녕인지 및 주관안녕정서가 모두 낮았다($r = -.10 \sim -.17$). 이 결과는 사회비교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행복의 수준이 낮아서, 적어도 대학생들에서 사회비교가 행복에는 나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연구에서 이 효과가 과연 사회비교의 동기나 동기의 충족 수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았다. 비교동기에 따라서 살펴보면 자기향상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안녕정서가 높아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13$). 그러나 자기평

가와 자기방어의 동기는 주관안녕과 무관했다. 또한 자기향상동기의 충족 수준은 주관안녕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12$), 자기평가동기의 충족 수준은 전체주관안녕, 주관안녕인지, 주관안녕정서와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12\sim.15$). 그러나 대학생들 다룬 이 연구에서 자기방어동기의 충족 수준은 주관안녕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 분노의 측정치들이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고 사회비교 요인들 가운데 주관안녕을 중다예측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들을 알아낸 결과를 보면 역시 사회비교동기가 높을수록 주관안녕의 세 측정치들이 모두 낮았다. 그러나 평가동기의 충족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안녕의 세 측정치들이 모두 높았다. 그러나 사회비교의 동기들과 이 동기들의 충족 수준이 상호작용하여 주관안녕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량은 선행연구와 유사했다. 이 결과에서 분노정서의 경험을 통계적으로 제거해도 사회비교의 동기와 충족 수준에 따라서 주관안녕의 상관이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 사회비교의 동기 및 충족 수준과 주관안녕의 단순상관계수 ($N=363$)

주관안녕 사회비교	전체주관 안녕	주관안녕 인지	주관안녕 정서
사회비교동기	-.15 **	-.17 **	-.10 *
자기향상동기	.07	-.01	.13 *
자기평가동기	.02	-.02	.05
자기방어동기	-.06	-.08	-.04
향상동기충족	.10 †	.06	.12 *
평가동기충족	.14 **	.12 *	.15 **
방어동기충족	-.05	-.04	-.04

한덕웅과 장은영(2003b)의 조사에서는 사회비교동기와 충족 수준에 따라서 주관안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학생 363명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가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전체 사회비교동기, 비교동기의 충족수준, 비교동기와 충족수준의 상호작용이 주관안녕에 기여하는 효과를 알아냈다. 이 연구에서 유의했던 사회비교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비교경향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평가동기의 충족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주관안녕이 높았다. 그러나 이 두 주효과는 이원상호작용의 설명증가분($\Delta R^2=.050$)이 유의한 추세를 보여서($p<.10$) 해석이 제한된다. 즉 자기향상동기가 높으면서 자기평가동기가 낮을수록, 그리고 자기향상동기가 높으면서 평가동기의 충족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안녕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태분노가 낮을수록, 분노억제가 낮을수록 주관안녕인지 수준이 높았다. 또한 전반적인 비교경향이 낮을수록 주관안녕인지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이원 및 삼원 상호작용은 설명증가분($\Delta R^2=.05$)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관안녕정서를 준거변인으로 동일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도 역시 비교동기와 충족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설명증가분 $\Delta R^2=.07$, $p<.05$). 즉 자기평가동기가 낮고 자기향상동기가 높을수록 주관안녕정서가 높았다. 또한 평가동기의 충족수준이 높으면서 자기향상동기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평가동기가 높으면서 자기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안녕정서 수준이 높았다.

이 조사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차로 전반적 사회비교의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체주관안녕, 주관안녕인지 및 주관안녕정서는 모두 낮았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주관안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평가동기가 충족된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체 주관안녕, 주관안녕인지, 주관안녕정서의 수준이 높았다. 한덕웅(1999)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들 가운데 2/3가량이 자신보다 우수한 사람과 사회비교를 선호하였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상향비교를 하지만 이들 가운데 유사비교를 통해서 자기평가의 동기를 충족시킨 사람들이 삶에서 더 행복을 느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한덕웅과 장은영(2003b)의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의 동기들, 이 동기들의 충족 수준과 아울러 과거에 주변의 권위있는 사람으로부터 사회비교를 강요받은 정도에 따라서 주관안녕이 달라진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대학생 338명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자기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이 높으면 전체주관안녕($r=.28, p<.001$), 주관안녕인지($r=.22, p<.001$), 주관안녕정서($r=.28, p<.001$) 모두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자기평가동기의 충족 수준이 높아도 주관안녕인지($r=.19, p<.001$), 주관안녕정서($r=.20, p<.001$) 및 주관안녕($r=.22, p<.001$)이 높았다. 그러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자기방어동기는 낮을수록 주관안녕정서가 높았다($r=-.12, p<.05$).

한편 한국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모나 중요한 인물들로부터 사회비교를 강요받는 경우가 흔한데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향상동기($r=.22, p<.001$), 자기평가동기($r=.24, p<.001$), 자기고양동기($r=.25, p<.001$)가 모두 높았다. 그리고 사회비교를 강

요받은 경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향상동기의 충족 수준($r=.19, p<.001$), 평가동기의 충족 수준($r=.13, p<.05$), 고양동기의 충족 수준($r=.23, p<.001$)이 오히려 높았다.

이 연구에서 각 변인들이나 이 변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주관안녕에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도 알아보았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이 예측변인들이 전체주관안녕의 15.8%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기향상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안녕이 낮아서($\beta=-.23, p<.01$) 자기향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수반됨을 시사한다. 향상동기의 충족 수준이 높아지면 주관안녕이 높았다($\beta=.39, p<.001$).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예측변인들이 주관안녕인지의 11.9%를 설명하였는데, 역시 자기향상의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안녕 인지가 낮았으나($\beta=-.21, p<.01$), 향상동기의 충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안녕인지가 높았다($\beta=.29, p<.901$). 주관안녕정서에서는 예측변인들이 주관안녕 정서의 16.2%를 설명하였다. 자기향상의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안녕 정서가 낮았으며($\beta=-.21, p<.01$), 향상동기의 충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안녕정서가 높았다($\beta=.42, p<.001$). 그리고 자기고양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안녕정서가 낮았다($\beta=-.16, p<.05$).

한편 강요된 사회비교 경험, 자기고양동기, 고양동기 충족수준($\beta=.40, p<.05$)의 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쳤다. 즉, 자기방어의 동기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 타인과 비교해서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이 동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사회비교를 강요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수준이 매우 낮았다. 이 연구는 한국문화에서 사회비교를 강요받은 경험이 개인의 사회비교 동기들과

이 동기들을 충족시킨 수준에 따라서 주관안녕에 달리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구체적으로 주관안녕에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보이는 조건들을 알아낸데 의의가 있다.

이희란과 한덕웅(2005)의 연구에서는 과제수행에서 하위 30%로 실패를 경험하고 우수한 타인과 비교하게 되는 상황에서 사회비교의 목표와 아울러 자신도 우수한 사람의 수행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수준에 따라서 긍정-부정 정서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연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필자가 간편기본정서척도에서 사용하는 바와 유사한 용어들로 측정했다.

우수한 사람과 비교하더라도 긍정-부정정서에서 순기능을 보이거나 역기능이 낮은 조건을 알아내기 위한 이 실험연구의 결과를 보자. 자신의 수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면서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자존심을 방어하도록 목표를 설정한 조건에서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상대만큼 잘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으면, 자기향상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혹은 자신도 상대만큼 잘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은 조건들보다, 긍정정서가 낮았다. 그리고 이 조건에서 경험한 부정정서도 다른 조건들과 비교해서 가장 높았다. 한편 이 조건에서 자기의 평가 역시 다른 조건들보다 가장 낮았다. 이 연구에서 비록 부정정서, 긍정정서 및 자기평가를 알아보았지만 이 조건들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한 주관안녕을 측정하였다면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주관안녕정서의 지표로 사용하는 Diener 등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연구에서 적어도 주관안녕에 관련 있는 정서에서는 이미 이 추론의 근거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문화에서는 특히 아동기와 청년기에 학생의 수행이 좋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수한 사람과 비교하도록 강요하는 압력이 높다. 이 연구는 이 경우에도 자신이 우수한 사람의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기성장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도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형성시켜 주게 되면 다른 조건들에 비해서 행복정서가 낮아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한국문화에서 사회비교가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비교하려는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주관안녕의 세 지표들이 모두 낮아서 행복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한덕웅(1999)이 제안한 바와 같이 비록 개인이 중요한 인물들로부터 사회비교를 강요받아서 사회비교의 동기가 높아지더라도 이 동기의 충족 수준이 높아지면 주관안녕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 현상은 한국문화에서 사회비교가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개인이 특출하게 지니는 사회비교의 동기, 외부압력, 자신의 성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회비교 동기가 충족된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주관안녕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효과

노인의 주관안녕에 중요한 사회심리 요인들

개인의 행복 수준에 따라서 생리적으로 면역체계의 기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나 사회관계의 갈등에 대한 대처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행복이 신체의 건강이나 질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체의 건강이나 질병이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박군석, 한덕웅 및 이주일(2004)의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89세에 이르는 노인 2,081 명을 대상으로 주관안녕과 신체건강에 각각 기여하는 사회심리 요인들을 알아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통계 변인들, 욕구, 건강행동, 긍정-부정 정서 등을 중다예측치로 함께 사용하여 주관안녕과 아울러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 알아내었다.

그리고 Lawton(1987)이 개발한 필라델피아 노인센터의 사기척도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게 전체주관안녕을 측정하는 8개 문항들만 가려내어서 사용했다. 이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을 보면, 과거 질병과 경제상태가 기여하는 변량($R^2=.10, p<.001$)을 통계적으로 제거하더라도, 나머지 요소들이 전체주관안녕을 설명하는 변량의 52.9%를 추가로 설명하였고, 위의 두 요소들도 모두 포함하면 63.1%를 설명하였다. 주관안녕의 설명에 기여한 중다예측 요소들은 과거질병($\beta=-.17, p<.001$), 경제상태($\beta=.42, p<.001$), 결혼만족($\beta=.08, p<.001$), 자녀만족($\beta=.07, p<.01$), 자녀에 대한 기대($\beta=-.05, p<.05$), 자존심욕구 충족($\beta=.33, p<.001$), 음주행동($\beta=-.07, p<.001$), 운동행동($\beta=.08, p<.001$) 및 부정정서($\beta=-.45, p<.001$)로서 사회지원과 종교신앙만 기여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심리 요인들이 주관안녕을 설명하는 전체 변량이 커서 이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이 노인의 주관안녕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주관안녕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편 주관안녕이 다른 사회심리 요인들과 함께 신체건강에 기여한다고 가정한 이 연구에서 개인의 신체건강과 유의한 상관관계

보인 변인들은 주관안녕($r=.50, p<.01$), 과거질병($r=-.32, p<.01$), 경제상태($r=.18, p<.01$), 결혼만족($r=.21, p<.01$), 자녀만족($r=.15, p<.01$), 자녀에 대한 기대($r=-.11, p<.01$), 사회지원($r=.23, p<.01$), 자존심욕구충족($r=.39, p<.01$), 음주행동($r=-.15, p<.01$), 운동행동($r=.21, p<.01$), 부정정서($r=-.37, p<.01$)였다. 이 결과는 주관안녕이 신체건강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주관안녕이 신체의 건강이나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면 중단연구가 필요하다. 박군석, 한덕웅, 이주일(2004)의 연구에서는 1년 간격을 두고 선행연구의 대상 가운데 377명을 무선으로 가려내어서 두 시점에서 위와 동일한 변인들을 측정하여 자료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 12개 중다예측치들이 일년 후에 측정하여 주관안녕을 설명하는데 기여한 변량은 30%였다. 이 가운데 과거질병($\beta=-.11, p<.05$)과 경제상태($\beta=.43, p<.001$)가 차지하는 변량을 통계적으로 제거하더라도($\Delta R^2=.20, p<.001$) 나머지 10개 요인들 가운데 자녀만족($\beta=.13, p<.01$), 부정정서($\beta=-.15, p<.01$) 및 신체건강($\beta=.18, p<.01$)이 주관안녕의 설명에 유의하게 기여하였다. 이 결과에서 신체건강이 일년 후 주관안녕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여 장기적으로 신체건강에 의해서 주관안녕이 달라짐을 입증하였다.

다음으로 주관안녕이 장기적으로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를 살펴보자. 주관안녕과 다른 사회심리 요인들을 측정하고 다음 해에 신체건강을 측정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과거질병($\beta=-.24, p<.001$)과 경제상태($\beta=.30, p<.001$)에 의해서 변량의 15%가 설명됐고, 나머지 10개 요인들이 추가로 17%를 설명하였다. 10개 요인들 가운데 자존

심 욕구 충족($\beta=.18, p<.01$), 운동행동($\beta=.19, p<.001$), 부정정서($\beta=-.19, p<.001$), 긍정정서($\beta=.15, p<.01$)가 주관안녕에 유의하게 기여하였다. 노인을 다룬 이 연구에서는 일년 전에 측정한 부정정서나 긍정정서가 1년 후 신체건강을 설명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만을 보면 현재 한국 노인에서 신체건강이 장기적으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관안녕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관안녕이 장기적으로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신체건강이 특히 좋거나 나쁜 노인들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종 시점에서 신체건강이 매우 좋은 33%와 매우 나쁜 33%의 노인들을 가려내어서 이들을 판별하는데 기여하는 1년 전의 예측요인들을 찾아냈다. 이 분석의 결과를 보면, 자녀에 대한 기대, 종교생활, 음주행동을 제외하고, 주관안녕을 포함해서 나머지 9개 요인들이 모두 신체건강이 좋은 노인들과 나쁜 노인들을 구분하는데 기여했다($F_{1,365}=57.80, p<.001$). 이 결과는 주관안녕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가 특히 건강이 나쁘거나 혹은 특히 좋은 노인들에서 나타남을 시사한다.

한편 박군석, 한덕웅 및 이주일(2005a)은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연구로 신체가 건강하면서 행복한 노인들이 지니는 사회심리 요인의 특징도 찾아냈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심리 요인들을 측정하고, 1년 후에 신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들 89명과 신체가 건강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한 노인들 256명을 판별하면 종교신앙만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유의한 판별계수를 보였다. 이 판별계수들을 사용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들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백분율은 100%,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모두 낮은 노인들을 분류하는 백분율은 98.8%로서, 전체 정확분류율이 99.3%에 달했다. 이 결과로부터 이 연구에서 가정한 사회심리 요인들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들과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한 노인들을 판별하는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박군석, 한덕웅 및 이주일(2005b)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처음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노인들이 생존한 노인들과 비교해서 이전 시점에서 측정한 주관안녕과 신체건강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도 알아냈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 거주지역, 배우자 동거 및 연령 변인들이 동일하도록 짝지어서 생존한 노인 61명과 사망한 노인 61명을 가려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사회심리요인들의 판별계수들을 사용하면 생존한 노인의 72.9%, 사망한 노인의 69.0%로 평균 70.9%의 정확분류율을 보였다. 그리고 두 집단을 판별하는데 기여한 요인들로는 자존심 욕구충족, 긍정정서, 신체건강, 음주행동, 사회지원이 유의했으며, 주관안녕도 유의한 추세를 보였다($\beta=.29, p<.001$). Diener와 동료학자들이 주관안녕의 지표로 보는 긍정정서는 노인의 삶과 죽음을 판별하는데도 기여하였지만 부정정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에서 전체주관안녕이 높고 긍정정서를 경험한 빈도가 높은 노인들의 생존률이 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존하거나 사망한 노인 각각 61명씩만 가려냈으므로 장차 표본이 큰 자료로 반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문화요인

사회규범과 일치하는 행동이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덕웅(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서 유교관습의 영향으로 사회규범이 되어 있는 중요한 사회행동들을 개인이 실제로 실행한 수준에 따라서 주관안녕이 달라진다는 인과모형을 제안하고, 실증연구를 통해서 이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유교관습과 연결되는 사회행동들 가운데는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질이나 사회적응에 순기능을 보이는 행동들도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한국의 사회환경에서 갈등을 유발하여 개인의 사회적응이나 주관안녕에 역기능을 보여서 나쁜 인습이라고 평가되는 행동들도 많다. 한덕웅(2003, 2004)은 다른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일련의 전국 조사를 통해서 한국인의 심리와 행동들 가운데 유교문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특징들을 계량적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차재호, 1983/1994; 한덕웅, 1994, 2002, 2003a, 2004; 최상진, 2000; 조궁호, 2003)에서 한국문화의 특징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된 한국인의 사회행동들 가운데 어떤 요소들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주관안녕에 순기능을 보이고, 어떤 요소들이 역기능을 보이는지 알아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규범이 되는 사회행동들을 사회환경에서 수용하는 수준에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에 순기능을 보이기도 하고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가정했다. 다시 말해서 가정, 학교, 회사

에서 전통의 관습에 조화되는 생활문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 사회규범의 영향으로 이 사회행동들을 실행한 개인도 자신의 행동을 좋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사회지원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규범과 조화되는 문화를 형성한 사회환경에서는 이 문화와 조화되는 행동을 실행한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좋으며,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수준도 낮다고 가정했다. 이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복하게 생활하여 주관안녕의 수준도 높다고 가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가치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에서 중요한 사회규범들을 찾아낸 결과를 활용했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유교의 영향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회규범들만을 가려낸 다음에, 각 규범을 반영하는 사회행동 척도들을 제작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서 개인이 사회관계에서 각 행동을 실제로 실행한 수준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는 15개 척도들을 제작하였다. 이 척도들과 아울러 사회적응과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전국의 6개 지역에서 19세 이상 75세에 이르는 2,1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지난 1년간 각 사회행동들을 실행한 빈도를 매우 드물다(1)부터 매우 많다(7)까지 7점척도로 평정하였다. 대학생들은 가정과 대학에서 실행한 행동들을 측정하고,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과 회사에서 실행한 행동을 보고하였다. 각 행동척도문항들의 요인타당도와 신뢰도(Cronbach α)는 모두 높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가족은 가족들과 친밀하고 화목한 유

대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행동들을 측정했다. **효도**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모시기 위해서 대화, 순종, 심적 및 물적으로 지원하는 행동을 측정했다. **가문조상**은 조상을 숭배하기 위한 의례화된 의식들에 참가하고 가문에 동일시하여 자부심을 표출하는 행동을 측정했다. **친척관계**는 친척들과 연락하고, 돕고, 함께 어울리는 행동을 측정했다. **윗사람관계**는 자기보다 위계가 높은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추종하며 모시는 행동을 측정했다. **아랫사람관계**는 자기보다 위계가 낮은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고 지원하며 어울려 지내는 행동을 측정했다. **친구**는 친구와 사적으로 친밀하게 어울려 지내면서 서로 돕고 모임에 참석한 행동을 측정했다. **인간성**은 타인들과 인정있게 지내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 수준을 측정했다. **예의예절**은 사회관계에서 관습으로 지켜지는 예의와 예절의 기준들에 맞추어서 행동한 수준을 측정했다. **성의성실**은 사회관계에서 타인들에게 성의와 성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대하는 수준을 측정했다. **감정억제**는 이 척도는 특히 경험한 나쁜 정서들을 타인들에게 표출하거나 전달하지 않고 스스로 억제한 수준을 측정했다. **신의신용**은 사회관계에서 타인과 맺은 약속을 이행하고 타인들로부터 신뢰와 신용을 얻는 행동을 실행한 수준을 측

정했다. **집단주의**는 학교 동창이나 지역 출신의 연고집단과 동료집단 등에서 집합 활동에 참여한 수준을 측정했다. **노력근면**은 가정, 학교, 회사에서 개인이 맡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만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끈질기게 노력한 수준을 측정했다. **물질절약**은 돈을 포함해서 물자를 낭비함이 없이 절약하여 사용한 행동을 측정했다.

한편 최종 준거변인인 주관안녕과 아울러 매개변인들인 사회적응과 스트레스는 다음 척도들로 측정하였다.

먼저 **사회적응척도**는 개인이 가정, 사회, 전체 생활에서 각각 적응하고 있는 수준을 각각 측정하는 3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75부터 .92에 이르며, 신뢰도 $\alpha=.79$ 이었다. **스트레스척도**는 개인이 가정, 학교 혹은 회사, 사회생활, 일상생활, 최근 전체적 스트레스 수준을 7점 척도로 측정하는 9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62부터 .81에 이르며, 신뢰도 $\alpha=.87$ 이었다. **주관안녕**은 한덕웅과 표승연(2002)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 척도들의 세 척도들이 서로 상관이 있으나 각기 구별되는 세 요인들을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 요인모형의 부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NNFI= .95,

표 6. 행동빈도와 주관안녕 수준의 단순상관계수

	주관안녕		주관안녕		주관안녕
가정가족	0.24 ***	아랫사람	0.20 ***	감정억제	0.01
효도	0.25 ***	친구	0.17 ***	신의신용	0.17 ***
가문조상	0.12 ***	인간성	0.11 ***	집단주의	0.08 ***
친척관계	0.22 ***	예의예절	0.18 ***	노력근면	0.14 ***
윗사람관계	0.14 ***	성의성실	0.08 ***	물질절약	0.03

NFI=.95, GFI=.97, AGFI=.96, RMSEA=.08로서 모든 지표들이 만족스러워서 척도들간 변별력이 높았다.

각 사회행동의 빈도와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의 단순상관

각 사회행동과 전체주관안녕의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표 6에서 볼 수 있는데 사회관계에서 적응하는 수준에는 외사람관계만을 제외하고 14개 사회행동들이 각각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유의하게 기여하지 않는 행동은 외사람관계($r=-.02$, n.s)와 감정억제($r=.02$, n.s)뿐이었고 나머지 13개 행동들은 모두 단순상관이 유의했다. 이 13개 행동들 가운데 집단주의 행동을 제외하고 12개 사회행동들이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보여서 이 12개 사회행동들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순기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3개 사회행동들이 주관안녕과 유의한 단순상관계수를 보였으나 감정억제와 물질절약은 주관안녕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 가운데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고 억제한 행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에는 도움이 되지만($r=.10$, $p<.001$), 스트레스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서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유교사상에서 분노를 포함해서 부정적 감정의 억제가 사회관계에서 순기능을 보인다고 가정하는데, 이 결과를 보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 가설이 개인의 사회적응 기능에서는 지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로 보면 유교와 관련있는 15개 사회행동들과 스트레스, 사회적응 및 주관안녕의 단순상관을 각각 분석한 결과에서 외사람관계, 감정억제 및 물질절약의 세 요소들을 제외하

고 나머지 12행동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모두 일관되게 순기능을 보였다.

사회행동과 주관안녕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공변량구조모형의 검증

이 연구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반영하는 15개의 관습화된 사회행동들이 각각 사회적응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두 매개경로들을 통해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공변량구조모형의 부합도 지표들이 만족스러웠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와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먼저 자료를 무선으로 두 하위집합들로 나누었다. 그 가운데 한 자료는 중다회귀분석에 사용하여 사회적응과 스트레스의 중다예측에 각각 중요하게 기여하는 10개 사회행동들을 가려냈다. 다른 반분 자료를 사용하여 이 행동들이 사회적응과 스트레스의 매개경로들을 통해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변량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이 절차를 거쳐서 얻은 부합도 지표들은 NNFI=.92, NFI=.97, CFI=.97, RMR=.05, GFI=.97, AGFI=.91, RMSEA=.07로서 본 연구에서 간주러서 수정한 인과모형의 부합도 지표들이 모두 통상의 기준으로 보면 좋았다. 따라서 필자가 선행연구에서 얻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의 부합도를 분석한 결과보다 본 연구에서 간략한 인과경로들을 가정하는 모형의 타당도가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주된 인과모형을 검증한 결과에서 유의한 경로계수들만을 정리해 보면 사회행동들 가운데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가정가족, 예의예절, 성의성실, 집합주의 행동들은 순기능을 보이고, 감정억제는 역기능을 보여서, 모두 5개 행동들이 중요했다. 또

한 10개 행동들 가운데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행동들은 모두 6개였다. 이 가운데 가정가족, 성의성실, 신의신용, 물질절약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나 감정억제와 집합주의 행동이 잦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설과 일관되게 사회적응이 좋을수록 주관안녕 역시 높아져서 이 경로계수(.20) 역시 유의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안녕이 낮아져서 이 경로계수(-.37) 역시 유의했다.

각 사회행동이 사회적응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경로계수들의 유의도로 검증한 결과로부터 이 두 준거들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친 사회행동들도 알 수 있다. 가정가족과 성의성실의 두 행동들은 사회적응을 높이면서 스트레스는 낮추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순기능을 보였고, 감정억제 행동은 사회적응에도 역기능을 보이고 스트레스도 높이는 방향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집합주의 행동은 현재 시점에서 사회적응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동이었다.

한편 사회행동을 실행한 빈도를 측정 한 다음에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단기 종단적으로 주관안녕을 측정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일 시점의 자료와 비교해서 설명변량은 다소 낮았지만, 주관안녕의 설명에 기여하는 변인들이 동일하였다. 이 사실은 사회행동을 실행한 결과로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 주관안녕을 측정하더라도 동시점에 얻은 자료와 동일한 결과가 일관되게 반복해서 나타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2주의 단기간이 지난 후에 주관안녕을 측정하였으므로 장래에는 장기 종단연구를

통해서 주관안녕에 미치는 효과가 지속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유교관습과 관련된다고 평가되어서 다른 사회행동들은 대부분 사회관계에서 순기능을 보이면서 대인갈등을 유발하는 수준은 낮은 행동들이었다. 그런데 현재 시점의 한국사회에서 보면 유교관습과 연결되는 사회행동들 가운데 사회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여 역기능을 보이거나 적어도 순기능을 보이지 못하는 인습의 행동들도 많다. 장래 연구에서는 이 행동들이 과연 개인의 사회생활에서 주관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장차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응, 심리적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의 수준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다른 사회행동들은 대부분 사회관계에서 갈등을 예방하거나 완화시켜 주는 행동들이다. 그러므로 장차 주관안녕에 순기능을 보이는 친사회적 행동들을 일상생활에서 실행하도록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타인들과 관계에서 원만하게 생활하면서 주관안녕을 증진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차 심리학자들이 주관안녕이 낮아지는 현상을 억제하기보다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의 주관안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한국문화에서 중요한 사회행동을 변화계획을 마련하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전체로 보면 이 연구는 연구의 방법이나 결과의 측면에서 한국문화에서 개인이 일상생활에 사회규범이 되는 사회행동들을 실제로 실행한 수준에 따라서 주관안녕이 달라짐을 보인데 의미가 있다.

결론과 장래 연구의 과제

본 논문에서는 필자와 공동연구자들이 한국 문화에서 주관안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가정한 사회심리요인들을 실증연구를 통해서 검증한 여러 연구의 결과들을 개관하고, 장래 연구의 방향과 과제들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변인들과 개인차 요인들, 정서경험과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생각을 다룬 개인과정 요인들, 사회관계에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사회비교 요인들, 노인의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려내고 아울러 주관안녕이 신체건강, 신체질병, 성공적 노화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냈다.

본 논문에서는 필자와 공동연구자들이 개발한 주관안녕척도를 사용한 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고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관안녕의 구성요소로 삶의 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를 가정하고 이 세 측정치들을 각각 측정하여 서로 구분하여 설명하므로 개인이 경험하는 전체 주관안녕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안녕척도에서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주관안녕인지와 아울러 삶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를 측정하는 주관안녕정서를 각각 양극척도들로 측정하고, 이 두 측정치들로부터 개인이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전체주관안녕의 측정치도 얻었다. 그리고 국내외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들을 긍정정서척도와 부정정서척도로 나누어서 측정하고, 이 측정치들이 전체주관안녕, 주관안녕인지, 및 주관안녕정서의 설명에 각각 기여하는 수준도 알아냈다.

주관안녕이 개인의 행복을 다루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심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한편으로 주관안녕의 경험이 신체건강을 포함해서 개인에게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문화에서 한국인의 주관안녕을 다룬다는 목표로 보면 일부 요인들을 다룬데 불과하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심리학자들이 주관안녕을 연구한 기간은 매우 짧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행복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가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어서 점차 활발한 연구가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상황에서 한국문화에서 실제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관안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일부 사회심리 요인들을 알아내고, 장래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여러 주제들을 발굴하거나 시사한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자, 한덕웅 (2005). 자기차이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경험. 한국심리학회: 건강, 10(3), 349-374.
- 김교헌 (1991). 친교 관계에서 자기노출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137-158.
- 김교헌, 한덕웅 (1996). 자기노출의 목표, 자발성 및 분노억제경향이 생리적 각성, 정화 및 평가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66-88.
- 나영심, 한덕웅 (2005). 자기지침과 조절초점의 불일치가 자기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431-453.
- 박군석, 한덕웅, 이주일 (2004). 한국노인의 신

- 체건강과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441-470.
- 박군석, 한덕웅, 이주일 (2005a).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들의 사회심리학적 특징. 2005년 제1차 한국건강심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56-173.
- 박군석, 한덕웅, 이주일 (2005b). 한국 노인의 생과 사에 기여하는 요인. 한국건강심리학회, 2005년 제 4차 학술대회 논문집, 11-18.
- 이희란, 한덕웅 (2005). 실패의 경험 후 상향 비교의 목표설정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55-81.
- 장은영, 한덕웅 (2004).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에 따른 자기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27-153.
- 조궁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나남출판
- 차재호 (1983/1994). 국민성 활성화 시안: 시안의 심리학적 접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인의 윤리관(319-382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차재호 (1994). 한국문화의 분석. 문화설계의 심리학(119-153쪽).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한덕웅 (1994). 퇴계심리학: 성격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한덕웅 (1999). 사회비교의 목표와 성공/실패 경험에 따른 비교 대상의 선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11-329.
- 한덕웅 (2002). 한국문화는 유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54-260.
- 한덕웅 (2003a). 한국유학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한덕웅 (2003b). 4단7정의 경험이 주관안녕, 건강지각 및 신체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2003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310-311.
- 한덕웅 (2004). 한국인의 중요한 가치.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한덕웅 (2005). 한국문화에서 관습화된 사회행동이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2005 학술대회 논문집 및 정기총회 자료집, 17-26.
- 한덕웅 (2006). 한국문화에서 사회규범에 따른 행동들이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63-387.
- 한덕웅, 박준호 (2003).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반복생각과 분노경험이 주관안녕과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47-168.
- 한덕웅, 박준호 (2005).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생각억제와 자기노출이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183-209.
- 한덕웅, 박준호, 김교현 (2004).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자기노출, 반복생각 및 정서경험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99-130.
- 한덕웅, 장은영 (2001). 내집단과 개인의 수행환류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67-183.
- 한덕웅, 장은영 (2003a). 사회비교 동기와 강요된 사회비교가 주관안녕과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619-644.

- 한덕웅, 장은영 (2003b). 사회비교가 분노경험 주관안녕 및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85-112.
- 한덕웅, 표승연 (2002) 정서경험에 따른 주관 안녕, 건강지각 및 신체질병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3), 403-427.
- 한창수 (2005). 한국 노인의 우울증상과 행복. 2005 사회문제심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7-60.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Brody, L. R., & Hall, J. A. (1993). Gender and emotion. In M. Lewis & J. M. Haviland (Eds.), *Handbook of emotions*. N.Y.: Guilford Press.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Y.: McGraw-Hill.
- Cantril, H. (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Diener, E., & Lucas, R. E. (2000). Subjective emotional well-being. In M. Lewis & J. M. Haviland-Jones(Eds.). *Handbook of emotion*(2nd Ed. Chap. 21, 325-336). N.Y.: The Guilford Press.
- Diener, E., & Oishi, S.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In E. Diener & E. M. Suh(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pp. 185-218).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Diener, E., & Suh, E. M. (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Lawton, M. (1987). *Lawton's PGC morale scale*. Polisher Research Institut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 Lucas, R. E., & Gohm, C. L. (2000). Age and sex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In E. Diener & E. M. Suh(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pp. 291-317).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Mroczek, D. K., & Kolarz, C. M. (1998). The effect of age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333-1349.
- Manstead, A. S. R. (1998).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 In B. M. Clinchy., & J. K. Norem(Eds.), *The gender and psychology reader*(pp. 236-264).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NG, S. G., Woo, J., Kwan, A., Chong, A., & Lai, S. (2005). Positive Ageing: What is it and why do some people age well? 사회문제심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7-45.
- Okma, P., & Veenhoven, R. (2001). Is a longer life a better life? Happiness of the very old in 8 EU-conuntries. *Sociale Wetenschappen*, 43.
- Higgins, E. T. (1998).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In M.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30, 1-46). N. Y.: Academic Press.
- Shin, D. C., Ahn C. S., Kim, K. D., & Lee, H. K. (1983). Environmental effects on

- perceptions of life quality in Korea. *Social Indications Research*, 12, 393-416.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illiamson, G. M. (2002). Aging well: Outlook for the 21st century.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63-73). N.Y.: Oxford University Press.
- Wilson, W.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 294-306.

KCI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n Culture

Hahn, Doug-Woong

Dep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review the results of the subjective well-being (swb) studies performed by Hahn and coworkers in Korean culture. As the correlates of swb, we dealt with demographic/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intrapersonal variables, interpersonal process variables, and Korean cultural variables. We proposed that the components of swb were consisted of quality of life (cognitive swb) and overall happy feelings about one's own life (emotional swb). It was also assumed that a measure of total swb could be calculated by summated mean of cognitive swb and emotional swb measures. The data of the swb studies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above three measures of swb. The results of a nationwide survey (Hahn, 2004) from age of 19 to 75 years old ($n=2,230$) showed significant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following demographic/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and swb: Gender difference in swb was found (total swb $r=.08$, $p<.001$; life satisfaction $r=.10$, $p<.001$; overall emotional swb $r=.05$, $p<.05$). Men were happier than women in terms of all three measures of swb. It was also found that women appeared to experience greater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Correlation between age and emotional swb ($r=.09$, $p<.001$) was significant, but life satisfaction was not significant ($r=.04$, n.s). Correlations between economic status and swb were also significant (total swb $r=.23$, $p<.001$; life satisfaction $r=.15$, $p<.001$; overall emotional swb $r=.15$, $p<.001$). Although existence of father was negatively related to emotional swb ($r=-.05$, $p<.05$), the existence of mother was not related to any of swb measures. Similarly existence of brothers was related positively to overall emotional swb, but existence of sisters was not. Though existence of son was not related to swb, daughter contributed negatively to swb (total swb $r=-.12$, $p<.01$; life satisfaction $r=-.09$, $p<.05$; emotional swb $r=-.12$, $p<.01$). We assumed that

family member-in-law also contributed to swb because the extended close social networks were important in Korean cul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ollowing family member-in-law variables were related to swb: Parents-in-law(total swb $r=.11$, $p<.01$; life satisfaction $r=.10$, $p<.01$; emotional swb $r=.10$, $p<.01$), father-in-law(total swb $r=.11$, $p<.01$; life satisfaction $r=.11$, $p<.01$; emotional swb $r=.06$, n.s). The result suggested that especially father-in-law contributed to swb through financial and social support. Correlations between emotional experiences in everyday life and swb were also presented. The range of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positive emotion measures and swb were $r=.30\sim.48$ ($p<.001$) when the above two measures obtained at same time. But the range decreased to $r=.19\sim.32$ ($p<.001$) when the swb measure was obtained 9 month later longitudinally. Intercorrelations between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s and life satisfaction were $r=.37\sim.58$ ($p<.001$) when two measures were obtained at same time. We also examined the effects of the intrapersonal cognitive responses to the most stressful life event upon swb. The results of nationwide survey($n=1,021$) showed that self-disclosure(total swb $r=.09$, $p<.010$; life satisfaction $r=.10$, $p<.01$; emotional swb $r=.07$, $p<.01$), rumination(total swb $r=-.17$, $p<.001$), thought avoidance(total swb $r=.12$, $p<.001$; life satisfaction $r=-.08$; emotional swb $r=-.12$, $p<.001$) and suppression(total swb $r=-.13$, $p<.001$; life satisfaction $r=-.08$, $p<.05$; emotional swb $r=-.13$, $p<.001$) contributed to swb. It was also suggested that mismatch between self-guide and regulatory focus contributed negatively to emotional swb. It was also found that social comparison motives and fulfillment of the motives contributed to swb. The results of a survey research($n=363$ college students) revealed that the higher the general social comparison motive, the lower the swb(total swb $r=-.15$, $p<.01$; life satisfaction $r=-.17$, $p<.01$; emotional swb $r=-.10$, $p<.05$). It was also found that satisfaction level of self-evaluation motive contributed positively to swb(total swb $r=-.14$, $p<.01$; life satisfaction $r=-.12$, $p<.05$; emotional swb $r=.15$, $p<.001$). Both of self-improvement motive($r=.13$, $p<.05$) and satisfaction level of self-improvement motive($r=.12$, $p<.05$) contributed positively to emotional swb, respectively. The above results suggested that swb was depended upon the interaction effect of social comparison motives and level of fulfillment of the motives. We also reported the significant multiple predictors of swb in a sample of age from 60years to 89years old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significant multiple predictors of swb were past illness($\beta=-.174$, $p<.001$), economic status($\beta=.418$, $p<.001$), marital satisfaction($\beta=.084$, $p<.001$), satisfaction of offsprings($\beta=.065$, $p<.01$), expectation level of social support from offsprings($\beta=-.049$, $p<.001$), and negative emotions($\beta=-.454$, $p<.001$) among 16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It was also found that swb was an important multiple predictors of physical health. This finding was replicated in a longitudinal study. Both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were significant multiple predictors of physical health one year later. The results of the discriminant analysis showed both of total swb and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s contributed to discriminate the happy and healthy olds from unhappy and unhealthy olds. We paper also examined the effects of the normative social behaviors upon swb in Korean culture. The main hypotheses of the study(Hahn, 2006, in press) was that the important normative

behaviors would influence on swb through both of the mediation processes of adjustment to social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stress.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2,129 adults age of 19 to 75, from 7 regional areas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almost all of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15 normative social behaviors and the above three criteria were significant. The fitness test results of the co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ed that all of the fitness indices were satisfactory (GFI=.974, AGFI=.909, NNFI=.922, NFI=.973, CFI=.974, RMR=.049, RMSEA=.073).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following five path coefficients from behaviors to social adjustment were significant; behavior for family and family members($t=5.87, p<.001$), courteous behavior($t=4.39, p<.001$), faithful behavior ($t=2.15, p<.05$), collectivistic behavior($t=8.31, p<.001$). Seven path coefficients from the normative behaviors to psychological stress were significant; behavior for family and family members ($t=-4.63, p<.001$), faithful behavior($t=-3.86, p<.001$),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t=3.99, p<.001$), trustworthy and dependable behavior($t=-2.21, p<.05$), collectivistic behavior($t=3.72, p<.001$), effortful and diligent behavior($t=2.94, p<.001$), husbandry and saving behavior($t=3.40, p<.001$). The above results suggested that four normative behaviors among seven behaviors contributed negatively to psychological stress in current Korean society. The results also confirmed the hypothesized paths from social adjustment ($t=10.40, p<.001$) to swb and from psychological stress($t=-19.74, p<.001$) to swb. The important result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Confucian traditions and recent social changes in Korean culture. Finally limitations of this review paper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also proposed.

key words : Korean culture, subjective well-being, life satisfaction, demographic variables, emotional experience, self-disclosure, social comparison, social norm, old age